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충현의 만나

2004

가정예배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장로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충현의 만나

2004

가정예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시편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평 강



실패를 예상하며 시작한 일 속에서
주님은 때때로 큰 승리를 선물하시고
성공을 확신하며 시작한 일 속에서
때때로 주님은 큰 실패를 경험케 하시네.

이러한 세월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에 더 또렷이 새겨지는 진리 있으니
우릴 아끼시는 주께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일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아, 주님의 이런 사랑 나 알고 난 후에는
실패를 예상하며 염려하던 버릇 그만 두고
성공을 확신하며 자신하던 일도 다 버렸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니
실로 내 심령 고요하고 평온하여
마치 젖 떴던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과 같도다(시 131:2)

거친 세상 속에서 평강을 얻는 길은 오직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일 뿐입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여 마음 속에 깊은 평강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시편 서론 (2)



경건한 성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대부분 시편을 굉장히 사랑했고 즐겨 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늘 아침마다 시편을 깊이 묵상했고,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시편 속에서 풍성한 위로를 발견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편 기자와 함께 깊은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편은 그들의 노래였고 기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현대식 찬송을 부르지 않고 시편에 곡을 붙여서 시편으로만 찬양할 정도로 시편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요?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들을 몇 가지만 우선 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각각의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몇 가지 목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느끼고 알게 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은 정말 한 글자 한 글자를 깊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나의 반석이시요' 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반석' 이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느끼며 깨닫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심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각의 시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괴로운 상황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깊은 믿음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의 모범이 되는 책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심정과 어떤 내용으로 찬양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심정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의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찬양과 여러분 자신의 찬양을 비교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의 기도와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기자의 찬양과 기도를 배우도록 하십시오. 각각의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삼상 21:10-15).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비록 블레셋이 자신의 원수이지만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赫赫한 전과를 세워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피를 의지했을 때 그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4절). 또한 다윗은 신자도 때때로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결코 불행이 아님을 역설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19절)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든든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은 결코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고난을 제하하시는데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혹시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헤아리시며 친히 불쌍히 여기시는 구주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8절a)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에는 대적들의 증오와 꺾박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다윗의 비참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10년 동안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향한 구원을 앙망하며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느꼈던 깊은 고뇌와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본 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10절).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꺾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보여준 모범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신 모범을 그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벧전 2:21-23).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시 37:5)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에는 인간의 완악함(1-4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5-12절)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1절). 악인은 교만하고 완악하여져서 자신의 죄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2절). 그리고 습관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죄를 즐깁니다(3-4절). 악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4절b). 그러므로 악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와 믿음 뿐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의는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6절b).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7절a)라고 찬송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7절b)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십자가 그늘 밑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과 주의 광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b)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에는 때때로 악인의 삶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왜 의인의 삶은 고통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는 지혜시입니다. 본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와 주권과 공의를 따라 보용하시는 그분의 선한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인이 누리는 형통과 번영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1-8절). 여기에서 다윗은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이므로 성도들은 당장의 악인의 형통과 번영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앙 자세를 배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건들을 통하여 악인이 때로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기도 하나 그 결과는 비참한 멸망인 반면, 의인은 때로 고난을 당하나 그 결국은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9-40절).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에게 있을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17).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저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자주 그리고 깊이 묵상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위로할 것이며 큰 소망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참 승리는 저 영원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므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② 천국 교회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삼하 11:1-12:23)을 배경으로 하는 이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영육 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애절하고도 간절하며 긴박한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회개의 본질과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실패한 삶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지위나 명예의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사죄와 구원의 호소에 그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회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개의 초점이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복에 대한 호소에 맞추어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21-22절). 여기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몹시 두려워하는 회개자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간절하게 ‘속히’ 이루어달라고 부르짖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회개할 때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요? 어쨌면 오늘날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한 채 기계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몇 마디 기도로 회개를 마치는 지도 모릅니다. 참된 회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12:2a)

기도 제목 / ①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소망이 없는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유한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저 영원한 나라뿐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은 참으로 유한하며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 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5절). 이렇게 허무한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우리의 모든 소원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7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하며 결코 영원한 것은 못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전 5:19-20).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a)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a)

기도 제목 /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 찬양이고, 후반부는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때로 우리도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낙담하며 실망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잠 24:10).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약 5:13).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한 은혜를 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무수한 재앙과 수많은 죄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 사라졌다(12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찾으려는 수많은 대적 가운데 둘러 싸여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11절). 우리 역시 나그네 길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약 4:8a)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작은 자를 선대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병든 동안 소외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다윗은 빈약한 자들이 조롱이나 수탈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깊은 사랑을 품으셨고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 지극히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작은 자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5)라는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부인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b)

기도 제목 / 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 방황하는 시인이 다시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인의 간구는 갈급함에서 출발합니다. 마치 가뭄(렘 14:1-6) 속에서 물을 구하는 사람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은 시인을 불안하게 하고 낙망하게 만듭니다. 시인을 괴롭게 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뵈 수 있을까 하는 초조함(2절)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3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눈물로써 음식을 삼는 어려움(3절) 속에서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5절), “...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8절).

불안과 낙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갈급해 하는 영혼에게 신선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낙망하여서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헤매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으로”(고후 5:7)

기도 제목 / ①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 가운데 자신을 변호할 사람도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그 어떤 존재도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인이 받고 있었던 고통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어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2절a). 그러나 시인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고통 받고 있던 시인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3절). 시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돌아갈 성산과 장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불안해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빛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는 천국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성령을 따라 말씀의 증거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기도 제목 / 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국가적 고난 속에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탄원합니다. 그 탄원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찬양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이런 고난을 평가하면서 그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22절). 이 말씀은 자신들이 이 고난 속에서 죽게 된 것이 현실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해는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의 종(사 53:7), 곧 갈보리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 시의 22절을 인용하면서 고난받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롬 8:36).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 받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앞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적 신비로 이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b)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본 시에서는 약속된 메시아,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왕의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는 신랑되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흠모하며 경배하는 신부는 교회 곧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기간 중에 천국 잔치에 대해 강론하실 때에 천국 잔치를 혼인 예식, 왕의 결혼 예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마 22:2, 25:1) 시인은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공평과 정의를 사용한다고 찬양합니다. 왕은 의를 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악을 철저히 미워합니다. 왕은 폭군처럼 난폭하지 않으며 바르고 평등한 법에 의하여 공정한 통치를 시행합니다. 이 왕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6절). 이 구절에서 ‘홀’이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며 그의 통치권은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나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축되거나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영원한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삶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 특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유일한 도움과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환난을 대조시킵니다. 물론 시인의 강조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피난처’라는 표현은 위험에 처한 인간이 안전을 위하여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로, 소극적인 면에서의 도움입니다. 하지만 ‘힘’은 위험에 처한 인간이 그 위험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으로, 적극적인 면에서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도움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용기와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3절)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분을 믿기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롬 8:31). 따라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패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1-2).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계 14:12).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기도 제목 / ① 방패와 병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원들이 ‘단기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주와 역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본 시는 이런 하나님을 손뼉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와 것임이여 저는 지존하시도다”(9절). 우리의 기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성취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보혈은 죄로 인하여 막혔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사이의 담을 헐어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엡 2:14-1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이나 국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열방의 방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인은 시온을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1절), '큰 왕의 성'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2절)이라고 부르며 찬양합니다. 시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을 가리키는 예루살렘이 높고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산과 그 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세상 다른 곳보다 높고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값비싼 대리석과 휘황찬란한 치장으로 뒤덮여 있지 않고 초라한 초막에 불과할지라도 거룩하고 높고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그릇이 질그릇에 불과하여도 그 내용물이 귀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귀하게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깨끗하고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점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롬 8:10).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영원한 큰 왕의 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영원한 큰 왕의 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14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분과 함께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큰 왕의 성에 대한 소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기도 제목 / 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캄보디아에서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희정, 김진경 자매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인간의 권세와 부를 죽음과 영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영원하지 못한 부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지혜시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고 해도 결코 자신의 생명 문제에 관해서는 작은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죽음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6-7절). 이 말씀은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그 풍부함으로 다른 형제를 구속하는 선을 베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풍부함으로는 결코 형제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딤후 6:10). 재물이 영원하리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모든 재물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됩니다(눅 12:16-21).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헛된 재물을 쌓는데 애쓰지 말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습니다(마 19:21).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 8:36-37). 재물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속전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값진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좇아가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후 6:6)

기도 제목 / ① 재물보다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외적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예배, 즉 내면적 준비 없이 외적인 제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제사에만 마음을 쏟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거하고 있는지, 말씀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거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요 8:37).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23절).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만 좋아할 뿐 정작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아는 사람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모든 경건의 연습, 예배드리는 일, 기도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① 예배드릴 때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이 범한 죄를 자복하며 지은 참회시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큰 축복을 받았던 신앙의 위인 다윗도 원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토로합니다(1-12절). 심지어는 출생 전부터 심각한 죄를 가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5절).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은 후 다윗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성이 드러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가슴을 치는 기도이며 회개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공로를 읊조리는 것은 참된 기도일 수 없습니다(눅 18:12). 죄의 고백 없이 자신의 필요만 아뢰는 것은 이기적인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롬 7:18). 그렇다면 근본적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 7:25a).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우리 죄를 사하시며...”(요일 1:9)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인은, 뿌리 뽑힌 나무와 푸른 감람나무의 대조를 통해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이 완전한 파멸을 맞게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7절). 악인이 의지하는 것은 풍부한 재물과 자신들의 악한 꾀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악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권위를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 때문에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가 된 것도 어디까지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8절b). 시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공황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엡 2:4-5).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풍부한 재물과 자신들의 악한 꾀를 자랑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에서 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의 종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삶이 참 지혜임을 가르쳐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며 그 어리석음의 결과는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악으로 드러나며 세상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밖에 없음을 한탄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3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신을 찾는 자를 찾기 위해 감찰하셨지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준에 비교하면 우리의 선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롬 3:10-12), 종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면 이 절망적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죄악을 벗어나리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엡 2:8)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옵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심 광야에 숨어있던 중 그곳 거민의 밀고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삼상 23장) 지은 시입니다. 무고히 생명을 노리는 악인의 집요한 추적을 뿌리치고자 하는 시인의 열망이 표출된 기도시로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정황을 아뢰며 나아가서 이미 구원을 경험한 듯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시인의 선취적 신앙이 돋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늘 시련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므로 신자들을 치며 그 생명을 수색합니다(3절). 그러나 하나님은 '돕는 자' 이십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자들을 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신자들의 불의한 행위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기울이십니다(2절). 하나님께서는 기도소리를 들으사 모든 환난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우리의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케 하실 것입니다(7절).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님께서 즐겁게 하시며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로 갈한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후 1:10).

하나님은 '돕는 분' 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② 단가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다윗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그의 측근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하여 쫓겨 도망하는(삼하 15장) 치욕스러운 고통 중에 지은 시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신앙의 적일 수 있습니다(11-13절). 나의 아내나 남편이, 부모나 자식이, 형제나 자매가, 가까운 친지나 이웃이, 친구나 직장동료가 나의 신앙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기에, 내가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통한 사단의 계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같은 일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막 13:12). 다윗은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16절). 그러나 우리 주위에 끝까지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보응을 받게 것입니다(19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23절).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22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실 것입니다(22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모략과 권세를 이겨야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마 10:21).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않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삼상 27장, 29장)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다윗의 고초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여호와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의지의 결단이기에는 어떤 장애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4절, 11절)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와 같이 혈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확신한 그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유리(流離)함을 주께서 계수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약속이기에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고난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며 하나도 놓치지시지 않고 다 기억하사 마지막 날에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히 13:6).

하나님을 의지하면 혈육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기도제목 / 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그 곳을 탈출한 후 아둘람 동굴이나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지내던 때(삼상 22-24장)에 지은 시입니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과 아울러 환경의 압박을 초월하여 모든 가변적 요소들의 통합 조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사 55:8-9).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5절, 11절). 하나님을 믿는 고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확신(7절)하며 나갔던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비록 육체는 구속(拘束)함을 받으나 영혼은 자유함을 얻으며 종국에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행 16:25).

우리가 할 일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하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은 채 오직 영욕에 눈이 멀어 권세를 남용하는 악한 위정자들을 절대자 하나님께 고발하는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범죄하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술사(術士)의 피리소리에 꿈쩍도 않는 '귀머거리 독사' 처럼 결코 그 말씀에 귀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악인의 모습은 아닙니까?(5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불의를 용납치 않으십니다. 반면에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사실 이 구절은 미래에 대한 언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주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술사(術士)의 피리소리에도 꿈쩍 않는 '귀머거리 독사' 처럼 결코 그 말씀에 귀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악인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 무릎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날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시 50:6)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사울이 자객을 보내어 다윗을 죽으려고 한 때, 다윗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죄에서 비롯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3-4절). 이 말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무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잠정적으로 혼재하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악인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방패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17절).

밤은 자주 환난과 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밤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지혜를 경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과 풍성한 자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그 자신은 불완전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절대공의의 실현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세상에 횡행하는 악과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후 대 심판에 근거한 종말론적 절대공의의 실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경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

하나님은 우리의 힘, 산성, 방패,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시험의 때를 잘 견디게 하소서. ② '총현선교훈련원(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일시적인 패배를 경험한 직후에 지은 것으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철저히 인식한 시인이 진군에 앞서 승리를 간구하는 기원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旗)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는 '지휘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휘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하여 지휘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시며 그를 통하여 진리, 복음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군사로, 용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싸우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삼상 17:47).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11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기 때문입니다(12절).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예수님을 좇을 때, 복음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사 이 최악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그 날에 십자가 군병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개가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저희들, 승리케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시인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오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본 시에서 하나님을 '망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3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까?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있다면 악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겠지만 견고한 망대가 없이 방치된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과 의 전쟁에서 보호받으려면 견고한 망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망대는 언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망대여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망대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망대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하고 안전한 망대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망대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안전한 망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롬 9:33). 세상의 부도, 권력도 안전한 망대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견고하고 안전한 망대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열린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임을 기억하시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 11:28a)

기도 제목 / ①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소서.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 역시 압살롬의 반역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위에서 축출하려는 반역자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동요치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조금만 어려움에 처해도 쉽게 좌절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지금 본질상 유한한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무한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기 때문입니다(3절). 우리는 잠잠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야(hope)합니다. 왜냐하면 대저 우리의 소망(hope)이 저로 쫓아 나기 때문이며(5절),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11절).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우리에게 구원의 산을 오르는 길은 단 하나 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구원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을 의지하고 그 분 앞에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8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주의 얼굴의 광채만 사모하게 하소서. ②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송미, 유미나 자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비록 친아들에게 쫓겨나 모든 권세와 명예를 박탈당한 채 거친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그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해 그는 넘치는 위로와 승리의 확신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1절).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나의 구주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나를 자유케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또한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어 경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3-4절). 주의 인자하심은 풍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11절).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격해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물을 갈급해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고 있는지는 것입니다(1절). 주님만 바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만나이다” (막 1:37).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만 갈망하며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 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는 사실을 고민하던 다윗이 악인의 종말론적 심판을 내다보면서 해결책을 찾았음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는 곧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대한 신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죄악도 숨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전지성(全知性)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 어떤 징벌도 면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즉,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죄악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혹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부정직함은 일시적인 유익을 위하여 영원한 유익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할 때, 불의한 꾀박이 계속되고 그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로써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도 곤경에 처하면 그 곤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공의의 심판을 잊고 환경에 압도당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고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그 곤경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면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낙심하지 아니하며”(고후 4:8)

기도 제목 / 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②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하나님께 나아가자

♣찬송/ 219장(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고>

히 10:19-21 ¹⁹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
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²⁰ 그 길은 우리를 위
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²¹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
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19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표현에서 '성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 ① 구약 시대 성막의 지성소
- ② 천국
- ③ 교회
- ④ 예배나 기도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

2) 19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 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 ②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 ③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믿고 의지함으로

3) 19절- '담력'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 ①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
- ②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우리의 믿음이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실 것이라는 용기
- ③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죄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

4)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 을 깨닫고 ☐ 을 맑은 물로 씻은 상태

5) 22절-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 ☐☐ 과 ☐☐☐ ☐☐ 으로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하나님께 나아가자」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자'의 단락을 읽기 전에

질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답)

2)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자'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무시하고 나아갔던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답)

참고) 레 10:1-3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²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서 죽은지라³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3) '참 마음이 필요하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참 마음은 무엇일까요?(말 1:6 참고)

답)

- 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결심
- ② 목욕을 깨끗이 하고 지극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마음
- ③ 공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마음
- ④ 신령한 체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참고) 말 1:6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4)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롬 5:1-2)

답)

참고) 롬 5:1-2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 '정결함이 필요하다' 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정결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문답)

6)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닫거나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는지요! 고위 인사들이 이 세상의 임금들이나 대통령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흠잡을 데 없이 치장을 합니다. 머리 스타일도 멋지게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최대한 품위 있게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몸가짐을 합니다. 임금이나 대통령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은 흠이 많은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서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명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 속에서 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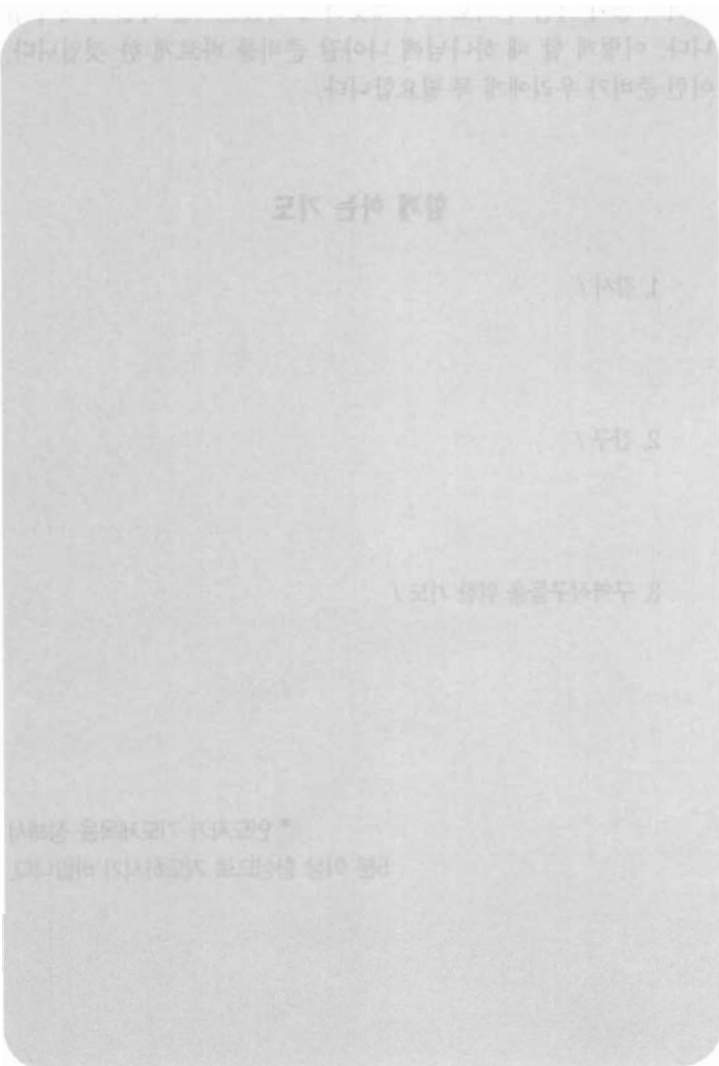
2. 간구 /

3. 구역식구들을 위한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제 2 과.....

하나님의 음성

♣ 찬송/ 319장(온유한 주님의 음성) ♣ 본문/ 여호수아 1장 1-7절

¹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²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³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⁴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⁵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⁷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1) 1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여호와와 종 가 죽은 후에

2) 1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눈의 여호수아

3) 2절-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명령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요단을 약속의 땅으로

4) 3~5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약속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너희가 밟는 곳이 다 너희 지경이 _____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_____

내가 너와 _____ 하리라

5) 6~7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마음을 _____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_____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하나님의 음성」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의 단락을 읽기 전에

질문)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을 혼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답)

2)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혼란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특별히 느끼게 됩니까?

답)

3)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마가복음 16장 15-16절 말씀을 볼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약속의 땅은 어디이며 또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일까요?

답)

4) '너와 평생 함께 하리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위로나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답)

5) '믿음으로 한걸음씩'의 단락을 읽고...

질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해 보십시오.

답)

참고) 히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 「하나님의 음성」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오늘 설교를 읽고 배우면서 새롭게 깨달은 바나 느낀 점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문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와 동행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 가운데 한 분이나 두 분 모두를 잃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여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다면,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질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2. 간구 /

3. 구역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제 3 과

천성을 향하여

♣찬송/ 432장(너 근심걱정 말아라)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

¹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²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
 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³ 가서 너희를 위
 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고)

요 16:5-6

⁵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⁶ 도리어 내
 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빌3: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
 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 1) 1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두 가지 명령은 각각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의 명령 - ()

‘하라’의 뜻은 - ()

- 2) 요 16:5~6- 그 당시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까?

- 3) 요 14:2~3절-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은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빈 칸을 적절한 말로 채워보십시오.

- 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처소를 □□하기 위함이다

- ②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다 마련하면 다시 너희를 내
게로 할 것이다

- ③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도 있게 할 것이다

- 4) 계 21:4-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처소는 어떤 곳입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천성을 향하여」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도록 하겠다는 주님의 초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느낀 점을 말해 보십시오.

답)

2) '믿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빌 4:6-7)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답)

하지 말아야 할 것 ·	·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	·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 믿음의 열매 ·	·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3) '믿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만일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불치병으로 죽게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면, 그 때에도 여러분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

4) '위대한 행복이 다가오고 있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이 보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볼 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5) '천성을 향하여 살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오

답)

참고) 빌 3: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6) 「천성을 향하여」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이번 설교를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깨닫거나 도전받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김영남

(목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성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믿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도 믿는 반쪽자리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에 지으신 영원한 처소를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혹시 좋은 직장이나 연금을 믿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본향을 떠나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만, 지금도 그들의 시민권과 행복과 기쁨은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성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성을 향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천성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김영남 목회

목회 (목회)

(목회)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2. 간구 /

3. 구역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제 4 과

회 개

♣찬송/ 357장(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본문/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참고>

행 17:16-31 ¹⁶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²²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²³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²⁴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 ²⁶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 ²⁸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²⁹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³⁰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³¹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사도행전 17장 22절-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 1) 16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했던 상황을 정리해 보십시오.

설교한 장소 - ()

그 장소의 상태 - ()

- 2) 29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지적한 죄는 무엇입니까?

①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 ②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 3)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① 허물치 않으셨다 ② 허물하셨다

- 4) 30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모든 곳의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명하십니까?

① 양심 ② 회개 ③ 자기반성

- 5) 31절- 회개를 뒤로 늦추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걱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다.

④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회개」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죄와 우상들을 내어버리자」의 단락을 읽고...

질문)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적절한 말을 찾아 빈칸을 채우십시오.

답)

☐로부터 돌이켜서 ☐☐☐과 하나님의 ☐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죄의 ☐을 포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을 사는 것이다.

보기 하나님, 죄, 길, 뜻, 삶

2)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십시오.

답)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케 하신다.

3)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의 단락을 읽고...

질문)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4)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그리스도인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5)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참된 회개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답)

6) 「회개」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이번 설교를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깨달거나 도전받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곧 회개의 복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중인이라”(눅 24:47-48).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나 믿음 없는 회개는 새로운 삶을 열매로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멘.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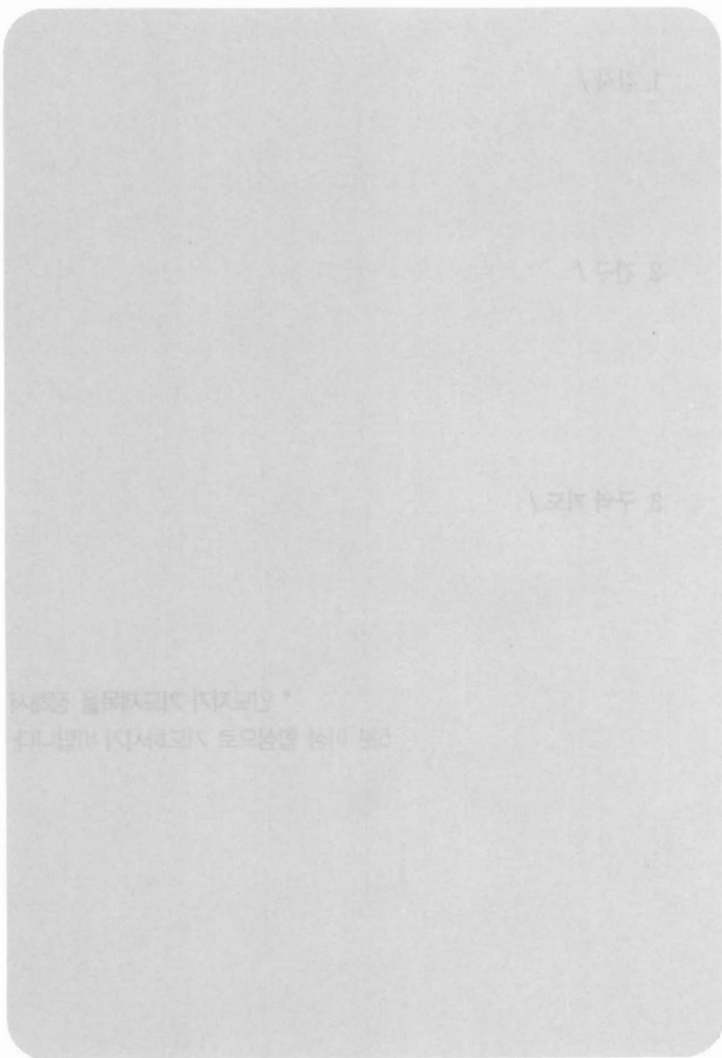
2. 간구 /

3. 구역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제 5 과

새롭게 떠오른 해

♣ 찬송/ 358장(아침 해가 돋을 때) ♣ 본문/ 창세기 32장 22-31절

²²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널새 ²³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²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²⁵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²⁶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²⁷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²⁸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²⁹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³⁰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³¹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창세기 32장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 1) 6~7절-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 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창 27:41-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은 장자의 을 가로챈 것 때문이다

참고) 창 27:41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 3) 24절-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4) 30절- 야곱과 더불어 씨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5) 26절- 씨름하는 야곱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내게 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6) 28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 ◆ 「새롭게 떠오른 해」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과거의 죄 때문에 고난에 처한 야곱'의 단락을 읽고...

질문) 과거의 죄 때문에 고난에 처한 야곱을 보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

참고) 습 1:17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2) '고통의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야곱'의 단락을 읽고...

질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

참고) 호 5:15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3)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한 결과 야곱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적절한 말을 찾아 빈 칸을 채우십시오.

답)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의 새 이름, 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을 맺게 되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야곱은 형 에서와도 을 맺게 되었다.

보기) 브니엘, 이스라엘, 동맹, 화평

4) '야곱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른 뒤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를 찾아서 O표를 하십시오.

답)

야곱은 형에게 재산을 아낌없이 주었다 ()

야곱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내려져 전보다 두 배 더 부자가 되었다 ()

야곱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화해를 하려고 밧단 아람으로 올라갔다 ()

5) '야곱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단락을 읽고...

질문)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보기에서 적절한 말을 찾아 빈 칸을 채우십시오.

답)

적인 삶을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과 형제들과 더불어 해야 한다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해야 한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의 길로 행해야 한다

보기) 화평, 세속, 하나님, 기도

6) 「새롭게 돋은 해」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이번 설교를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깨닫거나 도
전받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하나님의 해가 우리 위에 떠올라 그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형제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 회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하나님은 충현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마 9:37-38).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행합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히 11:21).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로 구성된 열두 지파를 축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들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해는 돌아 그를 비추었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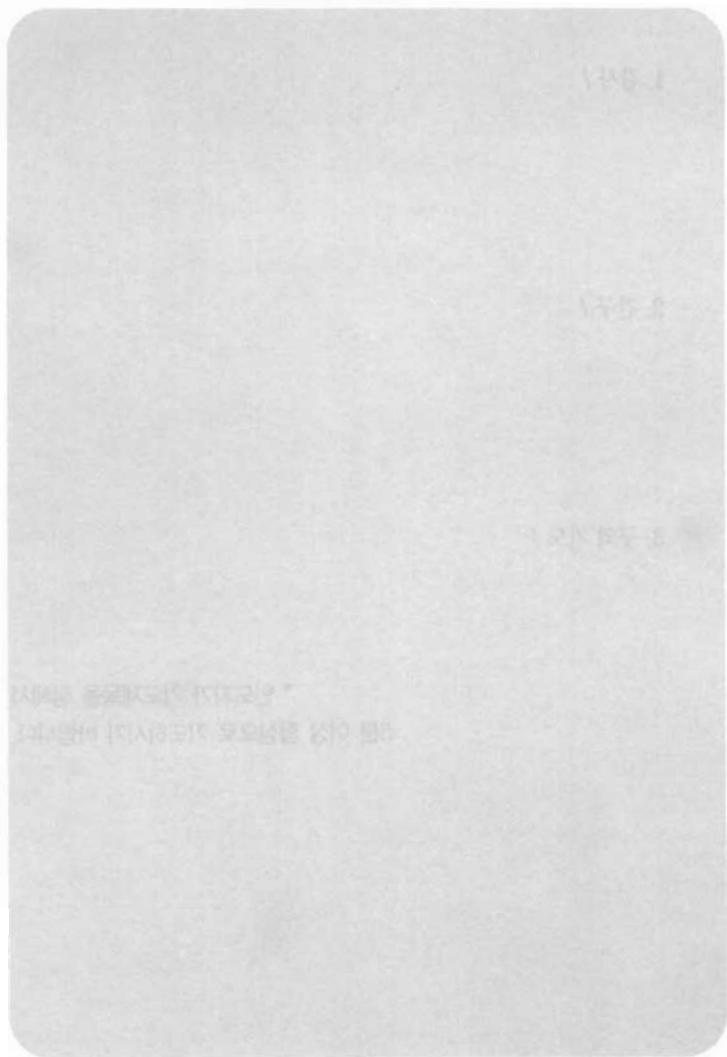
2. 간구 /

3. 구역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남성구역공과 설교

회 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30)

한글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오늘의 놀라운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범해진 죄를 하나님께서 허물치 않으시는 이유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범해진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는 초림 이전과 많이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핑계나 구실이 전혀 용납될 수 없다고 정식으로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는 모든 사람이 깊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행해야 할 중요한 문제 행동입니다.

죄와 우상들을 내어버리자

회개는 신자의 신앙적 체험의 기초입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회개의 교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열여덟 권의 책이 ‘회개’라는 주제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서른여섯 장이 회개의 의미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열권의 책이 회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예순 다섯 개의 인용절(reference)이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개에 관한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 죄에 대한 각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기꺼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죄의 길을 포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은 모두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29절b)과 같이 여깁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실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신자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은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황금이나 어떤 초능력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합니다. 허물치 않으시던 시대가 끝났으니 이제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도 그것들은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시 32:5). 잠언 29장 13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박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

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바로 이 분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삭개오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관리였는데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 사람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선언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눅 19:8). 여기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삶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요 죄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 절대 섬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옳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과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모두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는 회개의 필요성을 설교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마 3:2; 4:17). 오순절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행 26:20)하였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의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 이상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회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슬픔을 느끼는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는 마음의 변화요 죄로부터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제적인 방향전환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순히 걱정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참으로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악하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도 항상 악합니다(창 6:5 참조). 진실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롬 3:9).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구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회개를 설교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곧 회개의 복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중인이라”(눅 24:47-48).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회개로 이어 집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나 믿음 없는 회개는 새로운 삶을 열매로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총회의 만나 · 2004년 10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이경준(1-10일), 윤수일(11-20일), 김준희(21-31일)
·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충천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652-8200) [비매점]
